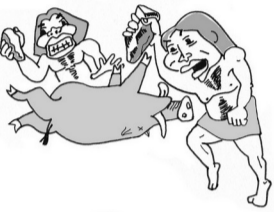


사회탐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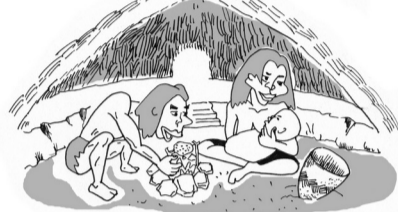
1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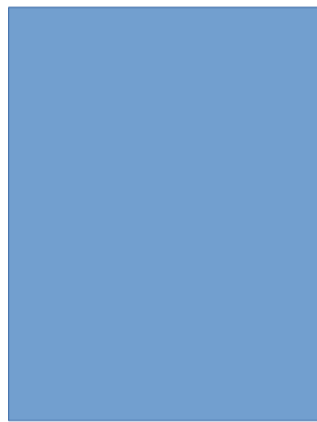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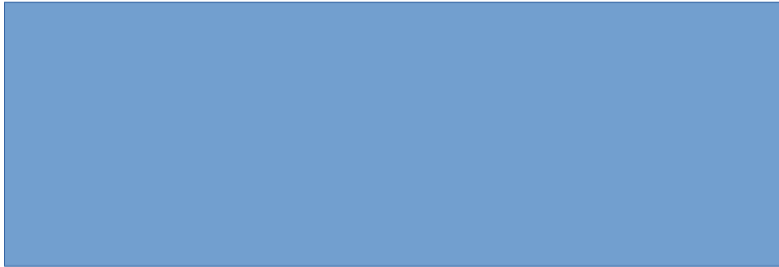
(나)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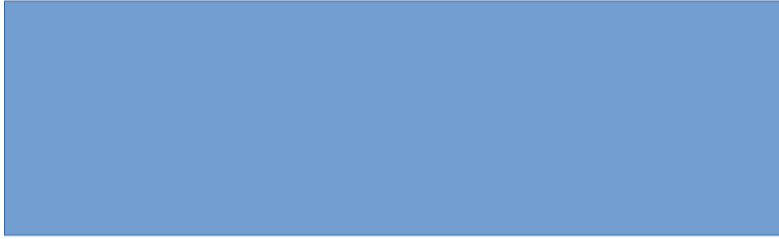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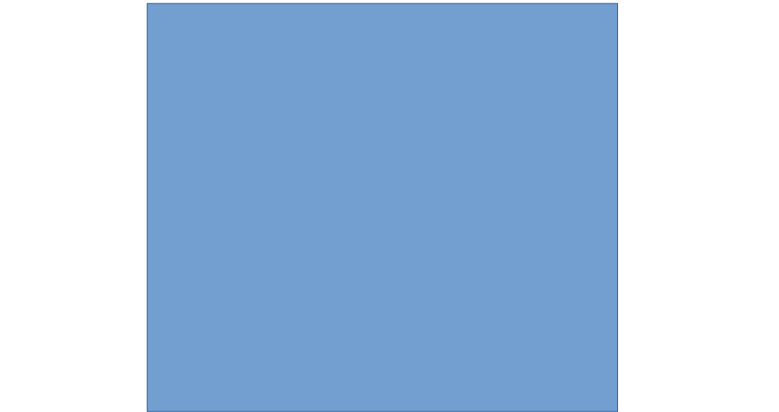


- 제
- 제
- 라
- 고구려
- 백 제
- 신 라
- 신 라
- 고구려
- 고구려
- 백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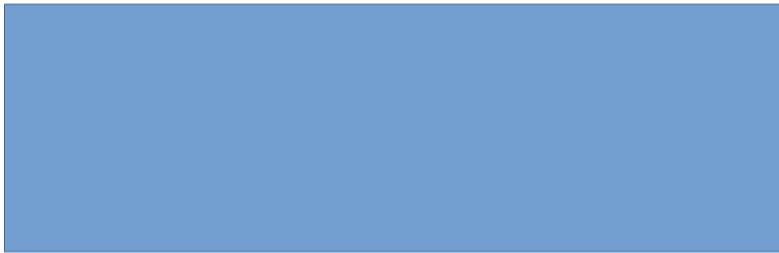


사회탐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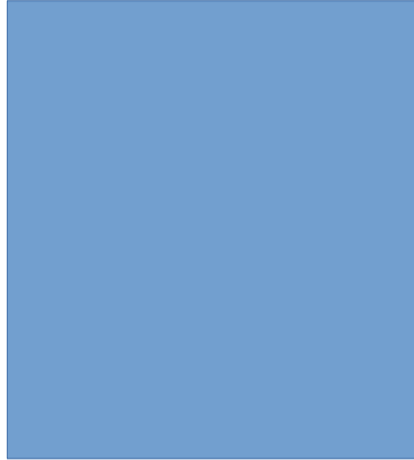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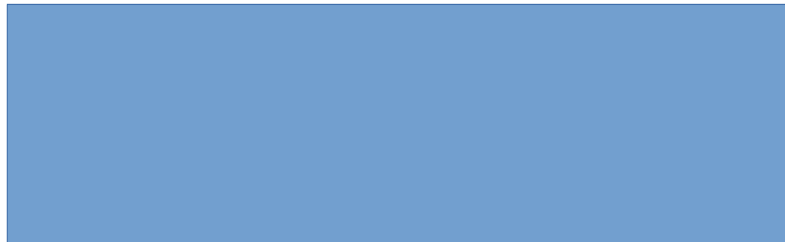
모년 모월 모일 날씨 맑음
 시험 공부한 지 어언 이십여 년. 당당히 복시 합격자 33 명 중에 뽑혔다. 임금님을 뵈 수 있다니 꿈만 같도다. 꼭 장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 사족 (??) 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향촌 사회에서 부농층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정치적 욕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였기에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망이, 망소이는 향, 부곡과 더불어 고려 시기 특수 행정 구역 중 하나인 이곳에 살고 있었다. 무신 집권기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자 정부는 회유책으로 이들의 행정 구역을 현으로 승격시켰지만 난을 진압한 뒤에는 원래대로 복귀시켰다.



사회탐구영역

3

맞은? [3 점]



밭두렁을 사이에 두고 두 농부가 대화를 하고 있다.

농부 1 : 이보게!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농부 2 : 나도 주위들은 건데 ... 요즘 중국에서 인삼을 많이 찾는데 . 재
너머 김서방은 인삼을 재배해서 논농사보다 몇 곱절의 이익을
거뒀다는군 .

농부 1 : 인삼 농사 ? 재배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 자네는 올해
어떻게 할거야 ?

농부 2 : 담배 농사를 해 볼 생각이야 . 장에 가면 순식간에 팔릴 걸 . 돈
좀 만지겠지 ?



사회탐구영역

태종 17년(1417)에 과전의 3분의 1을 충청·전라·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고, 세종 13년(1431)에는 이것을 경기도로 환급하였다. 그런데 이 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과전법은 유지가 어려워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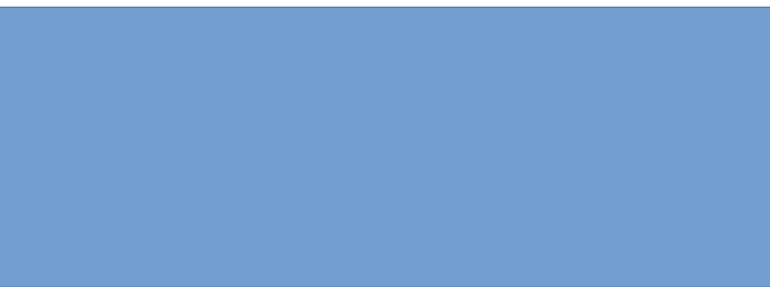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절하는 것은 여기에서 금지하는 바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극한 효자라 할지라도 맛있는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 드릴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 상재상서 -



예(?)는 근본과 문식(?)이 있다. 집에서 행하는 것부터 말하면 명분을 지키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진실이 근본이다. 관혼상제와 의장도수(???)*는 문식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집에서 날마다 실행하는 일상적인 바탕이니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다. 문식도 모두 사람된 도리의 처음과 끝을 세우는 것이다.

* 의장도수 : 몸가짐, 문장, 제도, 신분에서 따른 구별 등을 가리킴



사회탐구영역

우리나라 땅이 본래 협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문도 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인재 등용이 당파의 목록에 들어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조신들이 서로 공격하니 공론이 막히고 역당을 지목하게 되니 선악을 가릴 수 없다.

